

## 광주·전남 경제 '경험 못한 위기' 온다

파산 접수 22건, 전년의 두 배  
올해 50개 기업 파산 할 수도  
'위니아전자' 생산직 구조조정  
폐업 종합건설사 40% 급증

광주·전남지역 경제가 역대급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물고 온 경기침체 여파에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위기에 내몰리면서 지역 기업들의 파산이 급증하고 있어서이다.

올해 지역기업들의 파산사태가 최근 10년간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면서 지역 경제에 타격 위기감도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업계의 부진이 문제다. 한때 잘나가던 지역 건설사들이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 심각한 위기에 직면, 폐업 사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자금난에 빠진 지역 기업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최악의 위기'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의 목소리도 나온다.

6일 법원통계월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사건 접수 건수는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22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건)의 두 배(120%)를 뛰어넘는 것이다.

광주지방법원의 법인 파산사건 접수는 2019년 19건에서 코로나 사태가 촉발한 2020년 37건으로 94.74% 급증한 뒤 2021년 29건, 지난해 32건을 기록했다. 코로나 이후 매년 30건 안팎의 지역 기업들이 파산하고 있는데, 문제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불황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고물가, 고금리, 소비침체까지 겹쳐 올해 지역 기업들의 경영난이 더 심화됐다는 점이다.

현재 5월까지 매달 4.4개의 기업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는 것을 감안하고,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파산 신청 기업은 50개사를 뛰어넘어 최근 10년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실제 지역 산업 현장에서는 짙은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광주의 한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3개월 전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는데, 지난 20여 년간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해왔다는 점에서 경제계의 충격도 컸다.

이밖에 위니아전자 광주사업장은 생산직 사원의 50% 상당에 달하는 130여 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비침체로 가전제품 수요가 크게 줄면서



코로나19 사태가 물고 온 경기침체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경영악화가 가중되면서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의 파산과 건설사들의 폐업도 증가하고 있다. 6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하남산단9번로 일대에서 내려다 본 하남산업단지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생산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지역 협력업체의 수주 물량도 덩달아 줄어들어 지역 가전업체도 타격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때 잘나가던 지역 건설사들이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 심각한 위기에 직면, 자금력이 부족한 지역 건설업체들의 부도가 속출할 수 있다는 불안도 확산하고 있다.

이날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통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광주·전남에 폐업을 신고한 종합건설사는 21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15개사)보다 무려 40% 급증했다.

또 폐업한 전문건설사는 총 140개사로, 전년(113개사) 대비 23.9%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기준 광주·전남의 건설업 사업체는 3만 8946개(종사자 19만3995명) 수준에 달할 정도로 지역 산업계에서 건설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 데다, 건설현장이 멈춰 서면 건설업체 직원과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큰 상황이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지방 중소 건설사들의 한계기업과 부실위험기업 비중이 수도권보다 더

크게 상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폐업 사례도 많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최근 광주·전남 중소기업, 제조업계의 경기전망이 계속해하

락 추세다"며 "경제성장률 저하, 고물가·고금리 지속에 따른 소비위축, 수요산업 부진 등으로 지역 제조업계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최저임금, 노동계 1만2000원·경영계 9700원

#### 2차 수정안 제시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6월 각각 1만2000원과 970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에 대한 2차 수정안으로 이 같은 금액을 제출했다. 월급(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시) 기준으로는 각각 250만8000원과 202만7300원이다. 지난 4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1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30원을 내렸고, 경

영계는 50원을 올렸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격차가 조금은 좁혀지더라도 노사가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 공약위원들이 내놓은 안을 투표에 부쳐 결정한다.

노사 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1만2210원-962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1만2130원-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1만2000원-9700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차이가 크다. /연합뉴스

尹, 리투아니아·폴란드 방문  
나토회의서 한·일 회담 조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15일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방문한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순방 일정 등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10~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를 방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김건희 여사도 함께한다.

북미·유럽의 집단방위 체제인 나토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파트너국 자격으로 참석한 것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이후 2번째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신형안보 위협 등에 대해 각국 정상들과 논의한다. 한국과 나토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비확산, 사이버 안보 등 11개 분야의 양자 협력 문서를 채택한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나토 사무총장 면담, 네덜란드-노르웨이-리투아니아 등 연쇄 양자회담,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 주최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대상 만찬,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담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AP4 정상회담에서는 사회를 맡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사나 후미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여는 것을 조율 중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오염수 관련 입장을 설명할 것이란 보도가 일본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는 언론의 물음에 "어떤 의제로 논의할지 사전 논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12일 저녁 다음 방문지인 폴란드 바르샤바로 이동한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폴란드 대통령궁에서 개최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다음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연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베이비 박스' 양성화 찬반 논란 ▶6면

복스 - '음악은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14·15면

KIA 외국인 투수 2명 산체스·파노니 영입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바이탈뷰티



## 명작수천

진귀한 녹용과 인삼열매의  
생명력으로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는 궁극의 활력

제품 상담 080-023-5454

구매 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